

사진이나 사진설명의 잘못으로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매체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해하는 사진을 게재했을 경우 피해자는 그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1> 기획기사를 예증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한 경우

커티스출판사(Curtis Pullishing Company)는 부주의하게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생활침해소송에서 패소했다. 1947년에 열살 먹은 엘리노어 · 수우 · 러허턴(Eleanor Sue Leverton)이 부주의한 자가용운전사에 의해 치였다. 한 뉴스사진사가 어느 부인이 발 아래의 어린 소녀를 도와주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이 앨라바마주 버밍(Birming)의 한 신문에 공표되었다. 이 시점까지는 리버델양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소송이 없었다.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자동차에 치인 20개월 후에, 세터데이 · 이브닝 ·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지가 『그들은 죽음을 요구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예증하기 위해서 그녀의 사진을 사용했다. 그 어린 소녀의 사진설명은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어린이 사고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고 있으나, 교통이 아직 희생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그 박스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있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주의로 대학살을 부르겠습니까? 여기에 어린이들을 살려두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연방항소원(Federal Cour1 of Appeals) 은 이 사건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공표하기에 정당한 주제인 이 특수한 원고는 보행자의 부주의에 대한 생생하고 경악스러운 예로서 적합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건이 특권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1951년)

<사례 2> 그릇된 사진설명을 한 경우

존·W·길(John·W·Gill) 부부의 두 가지 사생활침해소송 중에서, 하나는 승소를 했고 하나는 패소했다. 길씨 부부는 그들이 근무하는 오스앤젤리스에 있는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의 과자받침대의 걸상에 앉아 있었다. 유명한 사진사인 헨리·카리어·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이 길씨가 그의 부인을 팔로 감싸고 앉아있는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사람은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시적인 견해를 단 간략한 주석과 함께 『그래서 세상은 돌아간다』는 제목의 기사를 예증하기 위해서 하퍼의 바자(Harper's Bazaar)에 사용되었다. 길씨 부부가 소송을 했으나 그 잡지의 출판사인 허스트출판사(Hearst Corporation)에게 패소했다. 법정은 길씨 부부가 공공장소에서 자유의지로 자세를 취했고 그 사진 자체에 무례함이 싫기 때문에 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비록 길씨 부부는 사생활침해에 대해서 허스트출판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커터스출판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커터스출판사의 출판물 중의 하나인 레이더스·홈·저널(Ladies Home Journal)이 파머스 마켓에서 촬영한 바로 그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그 잡지는 잘못된 사진설명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진이 사생활을 침해했던 것이다. 그 잡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예증하기 위해서 길씨 부부의 사진을 사용했다. 그 사진의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진설명이 있었다. 「풍만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첫눈에 반한사랑"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글은 「100%의 성적 매력」과 저속한 형태의 사람을 규정했다. 법정은 그 사진설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이 기사는 이들 부부가 「서로 성에 흥미있는 사람들이고, 감각에 대단히 충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암시했다.」 (1952년)